

태풍도 못꺾은 폭염... 광주·전남 역대급 열대야

19일까지 24.4일 1973년 이후 세번째 기록... 월말까지 이어질 듯
올해 낮 최고기온 37.2도 ... 역대 최고 2018년 광주 풍암동 40.1도
고온다습 남풍류 한반도 유입 이중고기압에 체감온도 유난히 높아

폭염이 한 달 넘도록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평균 열대야 일수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폭염일수와 최고기온은 광주가 '광프리카'(광주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 불리던 1994년과 2018년의 역대급 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위안이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의 평균 열대야일수(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는 지난 19일까지 24.4일을 기록 중이다.

광주·전남 역대 1위 평균 열대야 일수인 2018년 기록(25.7일)과 1.3일, 2위인 지난 1994년 기록(24.9일)과는 하루 차이도 나지 않는다.

광주·전남이 제 9호 태풍 종다리 영향권에 들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태풍 이후 열대야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역대급 열대야를 기록한 해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을 따로 나눈 경우에는 올해 열대야도 역대급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광주에서는 열대야가 37일, 2010년에는

34일, 2018년에는 30일 열대야가 나타나 지역민이 밤잠을 설쳤다. 광주에서는 2018년 21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1994년 여수에서 열대야가 42일 나타나기도 했다.

지역민들은 올해를 역대급 폭염으로 여기지만 과거 기록에는 못미친다.

올 현재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는 18.7일이지만, 1994년 26.3일, 2018년은 26일에 달했다.

광주와 전남을 떼어놓고 보면 광주 폭염일수는 1994년 45일, 2018년 43일, 2016년 31일, 2017년 29일, 2024년 25일순이었다.

연속 폭염일수로는 지난 2018년 36일이 가장 길었다. 기상청 공식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전국에서 가장 긴 연속폭염일수다.

올해 현재 한낮 최고기온은 약과다. 광주·전남의 역대 여름철 한낮 최고기온은 38.5도로 2018년 두 차례(8월15일, 7월 27일) 기록했고, 1994년에는

■ 광주·전남 숨막히는 불볕더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평균	1991~2020	7.4일	평균	1991~2020	11.4일
1위	1994년	26.3일	1위	2018년	25.7일
2위	2018년	26일	2위	1994년	24.9일
3위	2024년	18.7일	3위	2024년	24.4일

7월 19일 한 차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 19일 한낮 최고기온이 37.2도까지 오른것이 최고였다. 2018년 8월 1일 비공식 기록이나 광주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이기도 했다.

서구 풍암동에서 온도계에 찍힌 40.1도는 광주 지방기상청 공식장비가 아닌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측정해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올해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364명(광주 53명, 전남 311명)이고, 사망자는 3명(광주 1명, 전

남 2명)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온열질환자는 440명(광주 118명, 전남 322명)에 달했고 온열질환으로 숨진 지역민도 6명(광주 2명, 전남 4명)에 달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광주지역 최고기온은 과거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올라 지역민들이 유난히 덥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8년에는 고온건조한 동풍이 기온을 끌어올렸다면, 올해 여름은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된 후 이중고기압에 갇혀 무더위를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이후에도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으니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2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30-80mm의 비가 내리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22일에는 광주·전남에 5-40mm 비가 내리겠다. 태풍이 무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고, 오히려 열대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와 폭염과 열대야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일 오후 5시 현재 종다리는 서귀포 서쪽 약 100km해상에서 시속 33km속도로 북적하고 있다. 이후 21일 새벽 3시께 충남 서산 남서쪽 약 130km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일부 이전 등 실질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4공구 건설 현장. /김진수 기자 jeans@

무안공항 민·군 통합 새 국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총력 지원에
시민사회단체·경제계도 힘 합쳐
김산 무안군수 민주 복당도 변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위해 힘을 합치면서 무안공항 민·군 통합공항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면서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전남 공동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박군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정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만나 공항 이전과 관련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 최다선인 박지원(5선) 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전남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남권 전체의 '찬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광주에서 무안군민과의 접촉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이 무안 방문 계획을 잡는 등 협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들은 광주공항이 있는 광산구 사회단체 임원 등이 함께 모여 무안군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다양한 설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말께 모여 공항 이전을 위해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는데 공감하고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광주 의원들은 공항 이전을 '공동 숙제'로 보고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항을 지역구로 둔 박군택 의원은 "무안군민들은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식의 부정적인 구호에만 노출되고 공항 이전 찬성을 이끌만한 좋은 정보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별로 없다"며 "군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진정성을 보인 뒤 찬성 입장이 많아진다면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을 '광주·전남 통합공항 이전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적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군민들의 신뢰도와 찬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안군민들이 반대하는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공항 이전이 필요한 이유나 장점 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안 방문 계획을 최대화하고 무안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더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치권과 단체장 등 당사자 간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광주 민간·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데는 동참한다"면서도 "해당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 등 당사자들이 이 같은 논의에서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주 등 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광역시 **광주은행**

광주상생체크카드가 후캐시백으로 변경됩니다.

2024. 9. 1. 부터

변경 전 선할인 방식

5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7% 할인된 46만 5천원 출금

➔

변경 후 후캐시백 적용

5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의 7%를
다음달 12일에
캐시백으로 환급

단, 환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대상카드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선 할인 방식으로 구매 및 충전 가능

변경일 2024년 9월 1일 부터

할인방식 변경안내 - 충전시 선 할인이 아닌 **충전 후 이용한 금액에 대해 후캐시백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 **충전 후 이용해야하며, 충전을 하지 않고 이용한 금액은 할인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전한도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 **통합 1인 50만원**
*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 구분**
- 광주상생체크카드란?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충전한 뒤, 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란?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는 선불카드로,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 및 충전 후 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문의 광주은행 전 영업점 또는 카드헬프센터 1577-3650

* 2024. 8. 31(토) 0시부터 2024. 9. 1(일) 오전 3시까지 광주상생체크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광주상생선불카드는 중단 없이 이용 가능)
* 2024. 8. 31(토) 오후 8시부터 광주상생체크카드 충전금 잔액은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연결계좌로 자동 반환될 예정입니다.
* 카드 연결계좌가 정지 등의 사유로 인해 충전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별도 반환 완료시까지의 광주상생체크카드 거래가 불가합니다.
* 자동충전 신청 내역은 일괄 삭제 예정으로, 자동충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024. 9. 1(일) 이후에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